

# 하우스재배에서 수확시기에 따른 녹차 화학적 성분의 변화

최갑성<sup>1)</sup>, 최정<sup>2)</sup>, 이정은<sup>3)</sup>, 이선하<sup>3)</sup>

<sup>1)</sup>순천대학교 식품공학과, <sup>2)</sup>보성차시험장, <sup>3)</sup>순천대학교 농업교육학과

## Changes of chemical components of tea due to plucking season during cultivation in greenhouse

Choi Kap Seong<sup>1)</sup>, Choi Jeong<sup>2)</sup>, Lee Jeong Eun<sup>3)</sup> and Lee Seon Ha<sup>3)</sup>

<sup>1)</sup>Dep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p>2)</sup>Posung Tea Experiment Station

<sup>3)</sup>Dept. of Agricultural Educatio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 실험목적

차의 하우스재배에서는 노지와 다른 환경조건에서 생육이 이루어지고 수확시기도 달라진다. 따라서 수확되는 차엽의 화학적 성분도 다르다고 예상할 수 있다. 녹차는 주로 기호식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차의 품질은 맛과 기능성 성분에 좌우된다. 본 연구는 하우스재배에서 품종별, 수확시기별 생산되는 차엽의 일반성분과 카테킨 성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재료 및 방법 재배

분석에 이용된 녹차 품종은 일본에서 육성된 *Fushun*, *Meiryoku*, *Okumidori*, *Saemidori*, *Yabukita* 및 국내 재래종으로 6종이었으며 하우스에 3년생 삽목묘를 이식하여 3년간 재배하였다. 채엽시기는 첫물차가 3월20~30일, 두물차가 5월15~20일, 세물차가 7월19 일경으로 품종, 시기별 채취한 잎은 -70°C의 deep freezer에 보관하면서 분석전 70°C에서 12시간 건조시킨 다음, 분쇄하고 60 mesh 체에 통과시킨 분말을 분석시료로 하였다. 수분, 전질소, 전유리아미노산, 테아닌, 카페인, 카테킨, 회분, 비타민 C 함량은 근적외선분광광도시스템 (NIRs, Model 6500 FOSS NIRsystems, USA)으로 분석하였으며 측정 스펙트럼 범위는 400~2500 nm으로서 얻은 실험치와 NIRs data 모집단의 통계분

석은 Infrasoft International Software WINIS II (version 1.04)을 이용하였다. 카테킨 성분은 상법에 따라 분말시료 100 mg을 80℃에서 30분간 진탕, 추출하고 정제 후 ethyl acetate로 분획, 농축하여 HPLC(Waters M244, USA; column, HiQ sil-C18, Japan)로 분석하였다.

## 결과 및 고찰

하우스에서 시기별로 채엽하여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질소 함량은 3.87~6.26% 범위로 세물차에서 높아 평균 5.61% 였다. 유리 아미노산은 1.98~4.26% 범위로 첫물차에서 평균 3.13% 였으며 품종별로는 Fushun (4.26%)이 가장 높았다. 테아닌은 0.83~2.31%로 첫물차에서 가장 높고 채엽시기가 늦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카페인은 2.26~3.82% 범위로 세물차에서 많았으며 재래종(2.26%)에는 적었다. 카테킨 총량은 10.33~13.85% 범위로 세물차(12.90%), 두물차(12.59%), 첫물차(11.57%) 순으로 함량이 높았다. 비타민 C 함량은 수확시기가 늦을수록 높은 경향이나 50.709 ~ 225.516 mg/g 범위로서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묵은 잎의 경우, 새순과 비교하여 회분(21.74%)과 비타민 C(327.223mg/g) 함량이 높았으나 다른 성분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차제품에서는 유리 아미노산(3.71%)과 테아닌(1.95%) 성분이 높았으며, 포장에서 재배된 *Meiryoku*와 재래종 차의 성분을 하우스재배 시료와 비교한 결과, 회분과 카페인 성분 외에는 낮게 나타났다. 카테킨 성분의 함량을 시기별, 품종별로 분석한 결과, 첫물차가 6.934%, 두물차가 13.038%, 세물차가 21.291%로서 증가하였으며, (-)EGCg는 큰 차 이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일조량과 온도의 영향으로 사료되었다. 품종별로는 만생종으로 알려진 *Okumidori*와 국내 재래종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Table 1. Comparison of chemical components of the first plucking shoots among tea varieties cultivated in greenhouse.

Varieties	T-nitrogen (%)	T-free amino acid(%)	Theanine (%)	Caffeine (%)	Catechin (%)	Ash (%)	Vitamin C (mg/g)
Fushun	6.263	4.262	2.312	3.652	10.333	12.457	75.839
Meiryoku	5.825	3.509	1.936	3.542	10.728	14.212	96.049
Okumidori	4.306	2.215	1.020	2.363	12.221	21.709	203.439
Saemidori	5.601	3.184	1.700	3.328	11.513	15.343	116.332
Yabukita	6.138	3.678	2.046	3.824	11.925	11.545	50.709
Native tea	3.872	1.989	0.831	2.269	12.724	23.054	198.143
Mean	5.334	3.139	1.640	3.163	11.574	16.386	123.418

Table 2. Comparison of chemical components of the second plucking shoots among tea varieties cultivated in greenhouse.

Varieties	T-nitrogen (%)	T-free amino acid(%)	Theanine (%)	Caffeine (%)	Catechin (%)	Ash (%)	Vitamin C (mg/g)
Fushun	5.311	2.430	1.487	3.502	13.400	15.832	72.955
Meiryoku	5.224	2.593	1.180	2.902	12.057	17.843	187.173
Okumidori	5.339	2.549	1.551	3.534	13.438	15.373	56.379
Saemidori	5.601	3.184	1.700	3.328	11.513	15.343	126.332
Yabukita	5.054	2.958	1.221	2.741	12.180	16.720	225.516
Native tea	4.976	2.081	1.267	3.221	12.964	17.799	151.363
Mean	5.250	2.632	1.401	3.081	12.592	16.485	136.619

Table 3. Comparison of chemical components of the third plucking shoots among tea varieties cultivated in greenhouse.

Varieties	T-nitrogen (%)	T-free amino acid(%)	Theanine (%)	Caffeine (%)	Catechin (%)	Ash (%)	Vitamin C (mg/g)
Fushun	5.603	2.943	1.221	3.431	13.342	14.423	167.091
Meiryoku	5.959	3.423	1.528	3.731	12.883	12.476	131.200
Okumidori	5.381	2.492	1.175	3.641	13.857	14.453	154.244
Saemidori	5.696	3.296	1.454	3.188	11.997	14.948	188.036
Yabukita	5.540	3.014	0.899	3.239	12.174	14.982	144.118
Native tea	5.481	2.989	1.508	3.300	13.195	15.162	174.974
Mean	5.610	3.026	1.297	3.421	12.908	14.407	159.943

Table 4. Contents of chemical components of old leaves and shoots in tea plants cultivated in field.

Varieties	T-nitrogen (%)	T-free amino acid(%)	Theanine (%)	Caffeine (%)	Catechin (%)	Ash (%)	Vitamin C (mg/g)
Shoots of Meiryoku	4.409	0.951	0.875	3.207	11.441	19.999	67.870
Old leaves of Meiryoku	4.278	1.256	0.491	1.477	8.538	23.983	333.237
Shoots of Native tea	5.070	1.757	1.239	3.338	11.995	16.949	124.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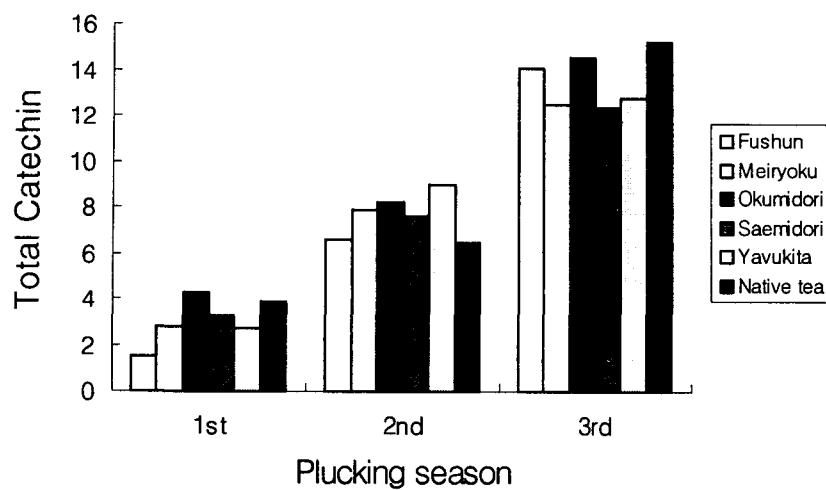


Figure 1. Differences of Total cateching due to plucking season in 6 tea varie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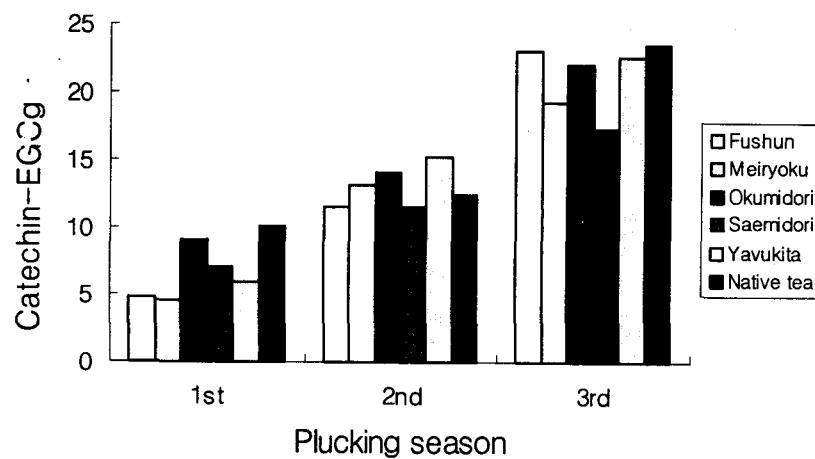


Figure 2. Differences of catechin-EGCg due to plucking season in 6 tea varieties